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연혁 및 유래	3
연혁 및 유래	3
선사시대	3
백제시대	3
통일신라시대	3
고려시대	3
조선시대	3
1895년	3
1914년	3
1973년	3
1974년	3
1983년	3
유래	3

기본현황

연혁 및 유래

공지사향

연혁 및 유래

선사시대

청동기시대의 유적인 지석묘(고인돌)이 주작산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사람이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음

백제시대

삼국시대 백제의 관할하에 도무군(道武郡)과 그 속현으로 동음현(冬音縣)에 속

통일신라시대

757년(신라 경덕왕 16년) 행정개편으로 양무군(陽武郡) 탐진현(耽津縣)에 속함

고려시대

940년(태조 23) 양무군이 도강군(道康郡)으로 탐진현은 영암군 속현이 됨, 1124년(인종 2) 영암속현이 장흥부의 속현이 됨

조선시대

1417년(태종 17) 도강현과 탐진현을 합하여 강진현(康津縣)이 되면서 강진현 백도면(白道面)에 속하게 됨

1895년

5월 1일 나주부 강진현 백도면 소속

1914년

3월 1일 강진군 도암면 소속으로 변경

1973년

7월 1일 도암면 신전출장소를 설치

1974년

10월 26일 군 직할 출장소로 승격, 도암면에서 분리

1983년

2월 15일 강진군 신전면으로 승격

유래

“신전면”은 원래는 백도면이었다. 조선시대 때의 백도면은 41개 리로써 현재의 신전면 일대와 해남군 북일면 일대, 북평면 일부 지역으로 강진 현에서는 가장 큰 면이었으며 면소재지는 신전면 용정마을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개편 이후 약 70여 년간 도암면 소속으로 지속되다가 1983년 분면 되면서 “신전(薪田)면”이라 칭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그러나 당시 면소재지 지역 일대를 통설로 빼앗고 “신전”이라 부리었다. 그러게 부르는 이유는 그 때의 전향으로 백두산산이었던 이 지역 일대를 밭으로 개간하여 백도면의 신전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http://www.gangjin.go.kr)

등 또는 인신 이따 붙디었다. 그렇게 두는 이유를 그때의 상황으로 보자 아인이었던 이 시적 절대를 일으켜 개인하여 흥나두를 얻었다. 그래서 추측이건데 "새밭등"을 "새뻗등"이라 불렀고 "신전(新田)"이라 불렀을 가능성과, 다른 추측으로는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길렀기 때문에 누에가 집을 짓고 사는 숲 신(薪)자를 써서 "신전(薪田)"이라 했을 것으로 추측은 되나 작명한 자는 말이 없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

신전면 마을지명유래 다운로드

COPYRIGHT © GANGJIN-GUN. ALL RIGHT
RESERVED.

GANGJIN

Web Contents

